

20대 여성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한 치수규격 연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강 순 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조교수 남 윤 자
 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부교수 조 효 숙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홍 나 영
 배화여자전문대학 전통복식과
 조교수 황 의 숙

目 次

I. 서 론	2. 신체치수 추정을 위한 회귀식
II. 연구방법	3. 체형분류와 등간치수 설정
1. 연구대상	4. 저고리와 치마의 사이즈별 패턴의 세부 치수표
2. 계측시기 및 방법	IV. 결론 및 제언
3. 자료의 처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및 고찰	ABSTRACT
1. 계측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I. 서 론

96년도 문화체육부 주관 설문조사 중에서 한복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의 한복에 대한 자부심은 높은 편이나 착용의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한복에 대한 높은 자부심에 비해 착용하려는 행동적 요소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한복의 생산·유통·소비 실태 조사 연구: 문화체육부 주관, 1996.12. pp.54-67)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불만족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복에 대한 불만족 요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구매 가격이 높고, 기성복이 발달되지 않아서 양장에서

와 같이 손쉽게 구입할 상점의 수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기성한복의 실태를 보면, 그 대부분이 가내 수공업의 형태로 생산되고 있고, 성인 기성한복의 제품치수는 대부분 소, 중, 대, 특대로 구분되어 몸에 맞는 것을 구입하기가 어려우며, 생산업자에 따라 기준규격이 달라서 각 치수간에 공통성이 없고 통계적 신뢰도가 낮아 보다 정확한 치수의 한복을 구입 착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박현정,1992) 따라서 잠재구매자의 다양한 욕구와 상이한 구매 능력에 맞추어 의복을 생산할 때 부적합한 치수를 생산

함으로서 생기는 체고 누증 및 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적집단에 대한 신체치수의 크기 및 분포등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김구자,1997)

<표 1> 연구대상의 출생지와 주성장지

지역	출생지		주성장지	
	인원수 (명)	백분율 (%)	인원수 (명)	백분율 (%)
1. 서울/경기	297	52.6	326	57.7
2. 충청도	47	8.3	42	7.4
3. 경상도	55	9.7	42	7.4
4. 전라도	111	19.6	106	18.8
5. 강원도	34	6.0	30	5.3
6. 제주도	8	1.4	7	1.2
미응답	12	2.1	11	1.9
합계	565	100.0	565	100.0

이에 본 연구는 한복활성화 방안으로 20대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신체치수의 크기 및 분포등을 파악하고, 한복제품 규격의 표준화를 위한 과학적 표준 치수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맞춤형에도 표출되고 있는 부적절한 치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해소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해 규격별로 세분화된 표준패턴을 개발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I. 연구 방법

기성 한복 치수의 표준화를 위한 체형 파악과 원형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서 20대 여자를 대상으로 직접계측을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대 여자를 대상으로 579명을 계측하여 그 중 자료가 미비하거나 이상치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56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군집표집 방법에 의해 연구대상을 측정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출생지와 주 성장지는 <표 1>과 같다.

2. 계측시기 및 방법

예비조사는 1997년 2월 10일에서 5월 23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본 계측은 1997년 4월 14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인체계측방법은 R. Martin의 인체 계측 방법과 공업진흥청의 KS A 7003(인체측정용어) 및 KS A 7004(인체측정방법)에 설정된 계측기준선과 기준점에 준하였다. 계측용구는 마틴의 인체 계측기(Martin's Anthropometric Instruments)를 사용하였으며, 피계측자는 몸의 윤곽선을 누르지 않는 정도로 신축성이 좋은 상

<표 2> 신체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계측항목	평균(cm)	표준편차(cm)
1) 키	159.88	4.82
2) B.P. 높이	113.74	4.31
3) 뒷목높이	135.72	4.49
4) 뒷허리높이	97.29	3.86
5) 살높이	71.62	3.41
6) 발목높이	6.19	0.48
7) 목밑둘레	38.09	1.87
8) 가슴둘레	81.92	5.33
9) 허리둘레	65.32	4.49
10) 엉덩이둘레	90.79	3.87
11) 진동둘레	36.79	2.53
12) 손목둘레	14.68	0.70
13) 어깨끝점사이길이	37.40	2.07
14) 화장	71.40	2.83
15) 뒤통	36.66	2.18
16) 등길이	39.72	1.94
17) 앞중심길이	32.56	1.79
18) 유장	24.01	1.83
19) 유폭	17.93	1.50
20) 앞길이	40.17	1.98
21) 앞폭	31.67	1.68
22) 팔길이	54.35	2.37
23) 뒤통너비	11.31	0.96
24) 가슴너비	28.03	1.98
25) 허리너비	22.93	1.68
26) 엉덩이너비	32.35	1.60
27) 진동두께	9.63	0.98
28) 가슴두께	20.69	1.93
29) 허리두께	16.51	1.52
30) 엉덩이두께	21.20	1.62

하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계측되었다. 체형분석 및 한복패턴개발에 필요한 항목으로 30개 부위를 선정하여 직접계측방법으로 계측하였다.

측정항목과 신체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3. 자료의 처리방법

인체계측 자료는 SPSS for Windows 95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요인분석, 다중회귀식, F검정, t검정등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계측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계측항목간의 상관을 고찰하고 항목들의 공통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을 통해 요인 분석을 하였다. 요인 수는 Kaiser가 제시한 고유치 1.0 이상의 것으로서, 5개의 인자가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과 그 인자부하량에 대한 각 인자들의 변수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인자를 varimax 방법에 의하여 직교회전을 하였다. 직교회전 후의 각 요인별 인자 부하량(factor loading)을 <표 3>에 나타내었다. 각 요인의 특성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등의 둘레항목과 가슴두께, 허리두께, 가슴너비, 허리너비 등의 두께, 너비항목에 높게 부하하고 있다. 요인 1의 특징은 신체의 둘레와 폭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체의 횡적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요인 1의 고유치는 10.36이며 전체변량의 35.7%를 설명해주고 있다.

요인 2는 키, 뒤통리높이, 뒷목높이등의 높이항목과 팔길이, 화장등의 길이항목에 높게 부하하고 있다. 요인 2의 특징은 신체의 높이와 길이를 나타내

<표 3> 요인분석결과

항목 \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허리둘레	0.84	0.07	0.16	0.24	0.04
가슴둘레	0.82	-0.01	0.23	0.30	-0.06
가슴두께	0.79	-0.03	0.29	0.18	-0.10
허리두께	0.79	-0.07	0.25	0.08	0.03
허리너비	0.78	0.13	0.12	0.20	0.05
엉덩이둘레	0.76	0.21	0.08	0.17	0.28
엉덩이두께	0.75	0.05	0.01	-0.03	0.23
진동둘레	0.70	0.13	0.05	-0.03	0.06
진동두께	0.69	0.03	-0.06	0.00	0.30
엉덩이너비	0.58	0.31	0.07	0.14	0.30
유폭	0.56	-0.06	0.20	0.16	-0.29
유장	0.53	0.00	0.28	0.22	0.07
손목둘레	0.52	0.17	0.14	0.12	0.25
가슴너비	0.51	0.12	0.04	0.44	-0.07
목덜둘레	0.38	0.16	0.07	0.37	0.10
살높이	-0.02	0.92	0.01	0.08	0.04
뒤통리높이	0.02	0.92	-0.07	0.03	0.19
B.P. 높이	-0.04	0.91	0.24	-0.03	0.10
키	0.05	0.91	0.26	0.07	0.16
뒷목높이	0.07	0.91	0.26	0.08	0.09
팔길이	0.30	0.77	0.06	0.02	-0.13
화장	0.24	0.76	0.03	-0.35	0.16
앞길이	0.36	0.17	0.83	0.01	0.06
앞중심길이	0.26	0.19	0.79	-0.04	0.16
등길이	0.13	0.21	0.71	0.20	-0.10
뒤통	0.31	0.09	0.08	0.84	-0.01
어깨끝점사이길이	0.15	0.12	0.07	0.78	0.46
뒷목너비	0.14	0.15	-0.05	0.06	0.72
앞뚝	0.26	0.18	0.24	0.19	0.54
고유치	10.36	4.99	1.83	1.38	1.18
변량의 기여율(%)	35.7	17.2	6.3	4.7	4.1
(누적 기여율)	(35.7)	(52.9)	(59.2)	(64.0)	(68.0)

는 것으로 신체의 종적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요인 2의 고유치는 4.99이며, 변량의 기여율은 17.2%이고, 누적기여율은 52.9%이다.

요인 3은 앞길이, 앞중심길이, 등길이의 길이항목에 높게 부하하고 있다. 요인 3의 특징은 신체 상반신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요인 3의 고유치는 1.83이며, 변량의 기여율은 6.3%이

고, 누적기여율은 59.2%이다.

요인 4는 어깨끝점사이길이, 뒤편의 항목에 높게 부하하고 있다. 요인 4의 특징은 신체 상반신의 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앞몸은 요인 5에 들어가 있으나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요인 4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요인 4의 고유치는 1.38이며, 변량의 기여율은 4.7%이고, 누적기여율은 64.0%이다.

요인 5는 뒷목너비와 앞몸의 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몸은 요인 4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뒷목너비를 주로 하여 분석하면 다른 항목에 영향을 받지않는 특수 요인으로 분석된다. 요인 5의 고유치는 1.18이며, 변량의 기여율은 4.1%, 누적기여율은 68.0%이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들레와 폭을 나타내는 신체의 횡적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만요인이라고도 한다. 요인 2는 높이와 길이를 나타내는 신체의 종적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기요인이라고도 한다. 이 두요인이 전체 변량의 50% 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두요인에서 대표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한 김 구자, 남윤자, Carol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기준부위를 선정할 때는 첫째, 많은 부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소비자측에서 기억하기 쉽고 측정이 용이한 부위이어야 하고 셋째, 각 의류제작시 필요한 부위이어야 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다른 항목들을 추정하기 위한 회귀식 작성시 한 회귀식내의 독립변수들은 서로 상관이 낮아야 한다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한복의 치수규격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한복의 평면적 구성의 입장에서 높이(길이)항목과 들레(너비)항목의 2가지 기준부위를 이용한 이원적 치수규격방법을 적용하였다.

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의 비만요인과 요인 2의 크기요인이 전체 변량의 50% 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두요인에서 대표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체의 들레와 너비의 크기를 나타내는 비만요인을 대표하는 항목으로 가슴둘레를, 신체의 높이와 길이를 나타내는 크기요인을 대표하는 항목으로 키를 선정하였다.

가슴둘레와 키는 각각 요인 1과 요인 2에 높게 부하하며 가슴둘레는 신체의 들레와 너비, 두께항목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키는 높이와 길이항목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한편, 서로 선형관계를 보이지 않는 낮은 상관으로서 회귀식 작성을 위한 독립변수로 타당하며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부위라는 점에서 기준부위에 적합하여 선정하였다.(박현정, 1992)

2. 신체치수 추정을 위한 회귀식

선정한 기준부위인 가슴둘레와 키를 독립변수로 하여 한복 제도시에 필요한 항목을 추정하는 공식을 작성하였다. <표 4>는 여자의 가슴둘레와 키를 독립변수로 하여 각 항목에 대한 다중회귀식, 각 항목과 가슴둘레와의 상관계수, 각 항목과 키와의 상관계수, 다중상관계수, 다중결정계수, F검증, t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검증 결과 전 항목들이 0.001 유의수준에서 회귀식이 타당하였다. 독립변수 X_1 (가슴둘레)에 대한 t검증 결과 뒷목너비를 제외한 전 항목이 0.05, 0.001 유의수준에서 타당하였다. 독립변수 X_2 (키)에 대한 t검증 결과 진동두께, 허리두께를 제외한 항목이 0.05, 0.01, 0.001 유의수준에서 타당하였다.

3. 체형분류와 등간치수 설정

등간치수의 설정은 공업진흥청에서 제시한 여성복의 치수(KS K 0051)를 참고로 하였다.

KS 규격에 의하면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신체치수는 100cm를 기준으로 가슴둘레 및 엉덩이둘레는 3cm, 허리둘레는 3cm 또는 2cm, 신장은 5cm

<표 4> 여자의 가슴둘레(X₁)와 키(X₂)를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식

항 목	회귀식	X ₁ 과의 상관계수	X ₂ 의 상관계수	R	R ²	F	t(X ₁)	t(X ₂)
진동둘레	$Y=0.24X_1+0.05X_2+8.58$	0.53	0.18	0.53	0.28	66.55***	10.95***	2.27*
손목둘레	$Y=0.06X_1+0.03X_2+5.11$	0.49	0.23	0.50	0.25	56.40***	9.22***	4.10***
화장	$Y=0.09X_1+0.38X_2+2.40$	0.24	0.70	0.75	0.56	217.26***	5.21***	19.39***
뒤꿈	$Y=0.21X_1+0.05X_2+10.90$	0.46	0.21	0.54	0.29	70.16***	11.18***	2.50*
등길이	$Y=0.09X_1+0.13X_2+11.21$	0.31	0.40	0.44	0.20	42.61***	5.14***	6.98***
앞길이	$Y=0.17X_1+0.13X_2+4.48$	0.53	0.36	0.59	0.35	91.38***	10.46***	7.21***
앞꿈	$Y=0.08X_1+0.10X_2+7.97$	0.33	0.29	0.41	0.17	35.46***	5.19***	5.94***
엉덩이둘레	$Y=0.44X_1+0.22X_2+20.69$	0.64	0.31	0.67	0.44	137.54***	14.41***	6.38***
발목높이	$Y=0.01X_1+0.02X_2+1.73$	0.12	0.25	0.27	0.07	13.86***	2.03*	4.57***
뒤목너비	$Y=0.02X_1+0.05X_2+1.72$	0.11	0.20	0.26	0.07	13.06***	1.64	4.59***
허리둘레	$Y=0.66X_1+0.08X_2-1.70$	0.79	0.15	0.77	0.60	259.65***	22.19***	2.41*

간격으로 연속하고, 피트성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의 신체치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및 신장을 각각 5cm 간격으로 연속하도록 되어있다. KS 규격을 참고로 하고 체형을 고려하여 등간치수를 설정하였다.(공업진흥청,1990)

(1) 치마저고리

치마저고리는 현대적 감각에서 볼 때 20대를 위한 여자 저고리는 피트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결론을 얻고, 가슴둘레는 3cm간격으로 등간을 나누고 신장은 5cm간격으로 <표 5>과 같이 Cross table을 작성하였다.

<표 5>의 가슴둘레와 키의 분포를 살펴보면 키는 155cm, 160cm, 165cm구간에 88.6%가 분포되어 있으며, 가슴둘레는 73cm부터 91cm구간에 94.5%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키와 가슴둘레항목을 조합하였을 때 전체 66셀 (cell)중 2%이상 분포되어 있는 셀은 15개이며, 전

<표 5> 여자의 가슴둘레와 키의 분포

() 안은 백분율(%)

키(cm)	가슴둘레 (cm)											계
	70	73	76	79	82	85	88	91	94	97	100	
145		1 (0.2)		1 (0.2)								2 (0.4)
150	1 (0.2)	1 (0.2)	5 (0.9)	8 (1.4)	6 (1.1)	5 (0.9)	2 (0.4)		2 (0.4)	1 (0.2)		31 (5.5)
155	2 (0.4)	6 (1.1)	21 (3.8)	32 (5.7)	30 (5.4)	21 (3.8)	11 (2.0)	10 (1.8)	2 (0.4)	2 (0.4)	1 (0.2)	138 (24.7)
160	3 (0.5)	12 (2.1)	26 (4.7)	53 (9.5)	60 (10.7)	34 (6.1)	10 (1.8)	10 (1.8)	8 (1.4)	1 (0.2)	2 (0.4)	219 (39.2)
165	1 (0.2)	4 (0.7)	10 (1.8)	35 (6.3)	35 (6.3)	23 (4.1)	13 (2.3)	12 (2.1)	3 (0.5)		2 (0.4)	138 (24.7)
170		1 (0.2)	4 (0.7)	7 (1.3)	7 (1.3)	5 (0.9)	4 (0.7)	3 (0.5)				31 (5.5)
계	7 (1.3)	25 (4.5)	66 (11.8)	136 (24.3)	138 (24.7)	88 (15.7)	40 (7.2)	35 (6.3)	15 (2.7)	4 (0.7)	5 (0.9)	559 (100.0)

〈표 6〉 커버율을 고려한 치수 설정 단계

가슴둘레분포 (%)	가슴둘레 (cm)	키 (cm)	4개	7개	9개	11개	커버율(%)
11.8	76	160			#	#	4.7
24.3	79	155		#	#	#	5.7
		160	#	#	#	#	9.5
		165	#	#	#	#	6.3
24.7	82	155		#	#	#	5.4
		160	#	#	#	#	10.7
		165	#	#	#	#	6.3
15.7	85	155				#	3.8
		160		#	#	#	6.1
		165			#	#	4.1
7.2	88	165				#	2.3
(83.7)	커버율(%)		32.8	50.0	58.8	64.9	64.9

체의 74.9%에 해당한다. 이 결과를 참고로 한 치수 설정의 단계는 〈표 6〉과 같다.

〈표 6〉은 실제 기성복 생산시 치수의 개수와 커버율을 고려하여 치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한 표이다. 그러나 한복은 서양복과 달리 치마, 저고리가 원형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 패턴이 실제 제품화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도에 필요한 치수표의 설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표 7〉에서는 4단계의 치수표 설정시 가

슴둘레를 76cm부터 88cm구간, 키는 155cm, 160cm, 165cm 구간을 포함시켜 치수표를 설정하여 한복의 기성복 제작시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저고리는 피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슴부위의 평편율에 의해 두가지 유형으로 체형을 분류하였다. 가슴평편율은 가슴두께/가슴너비로 평균값 0.74를 기준으로 하여 평편율 0.74 미만인 집단을 A형, 평편율 0.74 이상인 집단을 B형으로 분류하였다. A형은 가슴두께가 가슴너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 7〉 다양한 치수의 패턴 제도를 고려한 치수 설정 단계

가슴둘레분포 (%)	가슴둘레 (cm)	키 (cm)	4개	7개	9개	11개	커버율(%)
11.8	76	160			*	*	4.7
24.3	79	155	*	*	*	*	5.7
		160		*	*	*	9.5
		165			*	*	6.3
24.7	82	155				*	5.4
		160	*	*	*	*	10.7
		165		*	*	*	6.3
15.7	85	155				*	3.8
		160		*	*	*	6.1
		165	*	*	*	*	4.1
7.2	88	165	*	*	*	*	2.3
(83.7)	커버율(%)		22.8	44.7	55.7	64.9	64.9

적은 체형으로 유방이 납작하거나 가슴너비가 넓은 체형이다. B형은 가슴두께가 가슴너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체형으로 유방이 발달하였거나, 가슴너비가 적은 체형이다.

가슴둘레의 경우, 한복 저고리 착용시에 속옷 착용에 의하여 3내지 4cm둘레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가장 작은 사이즈를 79cm로 설정하였다. 여자의 평균신장은 159.9cm이고 화장의 평균은 71.4cm

〈표 8〉 가슴평편율에 의한 체형분류

집 단	기 준	인원수	가슴평편율 평균
A체형	가슴평편율 0.74미만	221명	0.690
B체형	가슴평편율 0.74이상	202명	0.795

〈표 8〉과 같이 가슴 평편율에 따라 A, B 체형으로 분류하고, 요즘 젊은 여성들은 가슴을 조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므로 가슴을 조이지 않으면서 신체에 편안하게 잘 맞는 저고리와 치마의 패턴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체형분류 결과 A체형의 인원 수가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착의실험 결과에 의하면 브래지어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대부분 B체형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원하는 형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A, B 두가지 체형의 특성을 살려 두가지 유형으로 패턴이 개발된다면 착용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저고리와 치마의 사이즈별 패턴의 세부 치수표

저고리와 치마의 사이즈별 패턴의 세부 치수표 설정시 가슴둘레를 79cm부터 88cm구간, 키는 155cm, 160cm, 165cm구간을 포함시켜 4단계로 치수표를 설정하여 한복의 기성복 제작시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1) 여자저고리

앞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패턴 개발을 위하여 새롭게 제시된 저고리 중요 부위의 필요치수는 〈표 9〉와 같다.

었다. 그런데 화장은 착의실험 결과 실제 측정치보다 2.5cm 정도 긴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여자패턴의 기본치수를 키 160cm, 화장 74cm로 하였다. 한편 화장은 키와 0.7034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치수의 증감에 따라 화장을 각 치수별로 2cm씩 증감되도록 하였다. 저고리의 길이는 유행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신체치수인 등길이를 기준으로 산정식을 만들기 보다는 사이즈별로 기준치수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진동과 가슴둘레와의 상관관계는 0.5323이었다. 따라서 진동둘레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으나, 기성복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확한 진동둘레를 모를 뿐 아니라 매장에서조차 정확한 계측이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산정식을 만들었다. 고대점의 기준이 되는 뒷목나비는 가슴둘레와의 상관관계가 0.1052로 낮은 편이나 대부분의 기존패턴에서는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삼았다. 목둘레를 재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측정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패턴과 같이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고대점을 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착의실험 결과 고대를 하나의 산정식으로 산출하였을 때는 피트성에서 부족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지만 치수에 따라 산정식에 차이를 두어 고대의 피트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표 9〉 여자 저고리 중요 부위 치수표

항 목		치 수			
		79-155	82-160	85-165	88-165
가슴둘레		79	82	85	88
키		155	160	165	165
화장		72	74	76	78
앞품	A형(B/4+0.75+2)	22.5	23.25	24	24.75
	B형(B/4+0.5+3)	23.25	24	24.75	25.5
뒤품	A형(B/4+0.75)	20.5	21.25	22	22.75
	B형(B/4)	19.75	20.5	21.25	22
고대		7.4 (B/10 - 0.5)	7.5 (B/10 - 0.7)	7.5 (B/10 - 1)	7.6 (B/10 - 1.2)
진동(B/4+1)		20.75	21.5	22.25	23

〈표 10〉 여자 치마 각 부위 치수표

항목		치수			
		79	82	85	88
조끼허리길이(저고리길이-3)		21	21.5	22	22.5
고대(B/10+0.5)		8.4	8.7	9	9.3
진동(B/4-3)		16.75	17.5	18.25	19
어깨나비		4	4	4	4
치마길이*		116	120.5	125	125
(뒤통높이)		130	135	140	140

* 치마길이=뒤통높이-(저고리길이-3) + 3(사선피침에 의한 증가분) + 4~5(구두높이)

저고리의 길이는 유행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신체 치수인 등길이를 기준으로 산정식을 만들기 보다는 사이즈별로 기준치수를 설정하고, 깃나비와 깃길이는 유행에 따라 저고리의 길이와 조화될 수 있는 기준치수를 정하되 가슴둘레의 증가에 따라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치수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치마

치마제도 시에 필요한 각 부위치수는 〈표 10〉과 같다.

I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20대 여성 565명을 대상으로 직접계측을 실시하고 KS-K에 규정되어 있는 간격을 참고로 하여, 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한 표준 치수 설정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요인분석 결과 기준부위를 가슴둘레와 키로 선정하였다.

가슴둘레와 키는 각각 요인 1과 요인 2에 높게 부하하며 전체변량의 50%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가슴둘레는 신체의 둘레와 너비, 두께항목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키는 높이와 길이항목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한편, 서로 선형관계를 보이지 않는 낮은 상관으로서 회귀식 작성을 위한 독립변수로 타당하며 소비자자들이 알기 쉬운 부위라는 점에서 기준부위에 적합하여 선정하였다.

2) 가슴둘레와 키를 독립변수로 하여 제도에 필요한 신체치수 추정을 위한 회귀식을 제안하여 한복 제도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KS K를 참고로 하여 신장은 5cm, 가슴둘레는 3cm간격을 등간으로 하여 cross table을 작성하여 '커버율을 고려한 치수 설정 단계'

와 '다양한 치수의 패턴 제도를 고려한 치수 설정 단계'를 각각 제안하였다.

- 4) 저고리의 피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슴평편을(가슴두께/가슴나비)을 기준으로 하여 두 체형으로 분류하여 패턴의 세부치수에 고려하였다.
- 5) 다양한 크기의 기성복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세부치수가 필요하므로 가슴둘레와 키의 기본부위를 조합하여 4단계로 저고리와 치마 패턴의 세부 치수표를 제안하였다. 위의 3), 4)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표 9>, <표 10>에 저고리와 치마의 중요 부위 치수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치수, 체형등을 고려하여 치수표를 만든 것으로 다른 연령대에 대한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각 연령대별로 적합한 치수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순제의, 한국 도시여성의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 한국복식학회,복식 35호, (1997).
- 2) 문화체육부, 한복의 생산 유통 소비실태 조사연구(연구보고서), (1996).
- 3) 문화체육부, 한복의 표준치수 설정과 패턴 표준화를 위한 연구(연구보고서), (1997).
- 4) 공업진흥청, 인체 측정 방법 및 표준화 연구, (1988).
- 5) 공업진흥청, 의류제품의 호칭 및 치수규격 단순화 방안 연구, (1990).
- 6) 권영숙, 우리나라 여자 저고리 원형설계에 관한 실험적 연구, (1986).
- 7) 김구자, 기성복 제작을 위한 성인 남성의 사이즈 스펙의 분류, 한국의류학회지,21(7),(1997).
- 8) 김구자, 남성복의 치수규격을 위한 체형분류, 서

- 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9) 김분철, 한복구성학, 서울:교문사, (1990).
- 10) 김순자, 중년여성의 의복구성용 인대제작을 위한 상반신 체형분류, (1992).
- 11) 김애린, 성인 여성복의 SIZE 규격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 제 23집, (1993).
- 12) 남윤자, 여성 상반신의 측면 형태에 따른 체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13) 민동원, 기성복 구매 및 사용할 때 불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14(1), (1986).
- 14) 박경자, 임순영, 한국의상구성, 서울 : 수학사, (1987).
- 15) 박현정, 한복의 표준 치수 설정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2).
- 16)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3)
- 17) 손경자, 전통한복 양식, 서울:교문사, (1990).
- 18) 손혜숙, 최경진, 허문열, 의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여아의 색동저고리 및 치마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19호, (1981).
- 19)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1998).
- 20) 이경미, 중년여성 기성복의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 (1992).
- 21) 이주원, 한복구성학, 서울:경춘사, (1991).
- 22) 이혜영, 기성복제작을 위한 표준치수체계의 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23) Carol J. Saiusso-Deonier, Marilyn R. DeLong, Frank B. Martin, Karl R. Krohn, A Multivariate Method of Classifying Body Form Variation for Sizing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4 No.1. (1985-1986).

ABSTRACT

A Basic Study on Establishing the Standard Size for Hanbok

-Concentrating on Women in Their 20's-

This study purport to establish the size that is flexibly receptive to consumers. Sample size was 565 women in their 20's, and 29 variables from the direct anthropometric data were applied to analyze. The preliminary survey was taken from February 10, 1997 to May 23, 1997 and the measurement was done from April 14, 1997 to June 10, 1997.

Following the KS regulations, Hanbok were given 3cm intervals each for the bust and hip girth, and 5cm for the height. Size system was presented, for the usage of developing the pattern of Hanbok, by analyzing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and referring to the

distribution chart of the back length and the neck to ulnar styloid length.

When establishing the standard size for the ready-made Hanbok like Western style clothes, it's convenient for both consumer and producer to present both bust girth and height.

To enhance the fitting of Chogori we used the flatness ratio of bust as the reference for grouping styles of body.

In the case of Chima-chogori, 4 brackets are developed. First step was bust girth 79cm, height 155cm; second was bust girth 82cm, height 160cm; third was bust girth 85cm, height 165cm; fourth was bust girth 88cm, height 165cm.